

## 때가 찾고

마가복음 1 장 9 - 15 절

### 1. 신과 죽음의 이름으로

이번 주간에 우연히 어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신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합니다. 청년의 때에 신앙에 대해 고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고민을 하는 청년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논어 선진편 11 장에 나오는 스승 공자와 제자 계로의 대화**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자 계로가 **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공자에게 질문을 하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러자 계로는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묻습니다. 공자가 대답합니다.

**삶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논어의 다른 곳을 보면, **공자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 2. 뉴라이프 - 때가 찾고

다만 사람도 제대로 모르고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신이나 어차피 잘 알지도 못하는 죽음에 대해 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공자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 2. 왜 복음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신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죽음을 이긴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과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설득력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신의 존재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종교에 대해 점점 흥미를 잃고 오히려 증오심을 갖는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죽음을 극복한 부활을 믿는지에 대한 답변** 말입니다.

아마도 가장 손쉽고 분명한 답변은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의심과 논쟁은 끝나게 됩니다.

**성경에 그 답이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과학적 증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존 인물로 믿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는 믿어도

## 2. 뉴라이프 - 때가 왔고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승천 역시 그저 허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합리적인 의심이나 궁금증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명을 조금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거리끼고 어리석은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정말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저 신비라고 말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괴상한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이 거리끼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을 통해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 2. 가짜 복음에 대항하여 새 시대를 선포함

마가복음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저자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도발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다른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의 생일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진공상태나 평온한 상태에서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 강력한 적대 세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이 무척이나 강하고 무섭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나사렛 예수보다는 로마 제국의 힘이 훨씬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황제의 복음이 있습니다.** 가짜 복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인기리에 방영한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회사를 떠나서 자영업을 하는 옛 상사가 오과장이라는 등장 인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 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지옥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부품처럼 소비됩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다 보니 피곤하기만 합니다. **이런 세상을 지배하는 가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바른 세상입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하는 세상이 건강한 세상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짜 복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대충 위로하고 잠깐 고통을 잊게 하는

## 2. 뉴라이프 - 때가 찾고

그런 피로회복제나 각성제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판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복음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복음은 가짜 짝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라고 외치는 것이죠.**

## 3. 요단강 세례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대를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요단강과 광야 그리고 갈릴리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이 세 번의 이동경로를 따라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9 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차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 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 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은 하늘이 찢어졌다는 말입니다. 본래 하늘은 땅 사이에는 단단한 벽이 있어서 서로 오가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그 벽이 허물어지고 갈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막혀있던 하늘과 땅이 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연극 무대를 가리고 있던 커튼은

## 2. 뉴라이프 - 때가 왔고

걸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황제의 대관식을 상상해보십시오. 새로운 황제가 세워질 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며 왕관이 새 황제의 머리 위에 씌워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새로운 황제의 대관식입니다.** 로마 황제가 왕관을 뺏으며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요해서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었다면, **예수님은 성령의 왕관을 쓰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친히 들으셨습니다.** 결론은 났습니다. 이제 가짜 복음의 시대는 끝났고, 진짜 복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역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성령의 왕관을 쓰게 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 4. 광야 시험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경로를 살펴봅시다. **세례 이후,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냅니다.** 몰아냈다는 것은 부탁을 하거나 안내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버틸 수 없도록 강압적으로 밀어냈다는 말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식물이 없는 곳입니다. 달리 말하면 생명력을 느낄 수 없는 땅입니다.** 창세기 1 장에서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 2. 뉴라이프 - 때가 찾고

선한 창조가 망가지고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린 메마른 땅**,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돌아가버린 땅, 바로 거기가 광야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사탄에게 놀아났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40 일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은밀한 속삭임으로 유혹합니다.

**“예수야! 너도 나 사탄의 복음을 받아라! 파괴와 폭력과 외로움의 세계를 너에게 줄 테니 내 복음을 따르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겼음을 압니다. **13 절에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말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사나운 맹수와 예수님은 친구처럼 함께 계셨습니다.

**사탄은 약육강식의 가짜 복음으로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사나운 맹수도 친구로 삼아 평화롭게 거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평화의 나라를 몸소 보여주시며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사탄을 그로기상태로 몰아넣고 강편치를 마구 날리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참하게 쓰러졌던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업신여기고, 폭력을 조장하고 약육강식을 조장하는 사탄의 전략을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자연까지도 선한 창조 질서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판을 완전히 뒤집는 복음입니다. 사탄의 모든 권모술수를 무너뜨리시고, 사탄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싸우지 않고서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광야의 복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 예수님의 광야 승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탄의  
가짜 복음을 이기고, 약육강식의 복음을 극복하고, 돈이 지배하는 질서를 거부하고,  
싸우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5. 다시 갈릴리로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사탄을 이긴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광야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줄개인 로마 황제가 여전히  
약육강식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바로 그곳이 또 다른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일터입니다. 가정입니다.

사탄은 비록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졌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내어줄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자신이 패했다는 소식을 차단하기 위해 온갖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14 절에 보면, 자신의 하수인을 고용하여 세례 요한을  
사로잡아 죽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15 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무슨 선포입니까? 이 짙막한 선포를 길게 늘린다면 이런 겁니다.

## 2. 뉴라이프 - 때가 왔고

사탄은 이미 광야에서 패배했다. 로마의 황제는 가짜다. 그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이다. 황제의 복음은 인생을 망가뜨릴 뿐이다. 그 가짜 복음을 버려라. 돌아서라.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따라 움직이는 로마의 복음을 버려라. 약육강식과 억압과 파괴와 외로움과 눈물과 고통의 노래를 멈춰라. 죄악의 시대는 끝났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사망의 시대는 끝났다.

여기 진짜가 나타났다. 찰찰찰이 나타났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있다. 참된 복음, 생명의 복음, 하늘과 땅이 통하는 복음이 여기 있다.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시대가 열린다.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 생명의 시대가 열린다.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 들짐승이 어린 양과 함께 장난하고 뛰어 노는 새로운 세계가 여기에 있다. 예수의 광야 복음을 믿으라! 때가 왔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십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거리끼고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의 영광을 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